

코믹수사극·중년 코미디...안방은 내년에도 편!편!

내년 공개예정인 '가우스전자' '개콘' 이끈 서수민 PD가 총괄 '지금부터 쇼타임!'도 코믹 장르 감독 박해준은 중년 코미디 '원더우먼' 등 코믹 흥행도 한 몫

"웃겨야 산다."

올해 코믹 장르가 안방극장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인 가운데 내년에도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복잡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시청자들이 가볍게 즐기며 웃음을 얻을 수 있는 코믹 드라마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곽동연·박해준·곽도원도 '코믹 도전'

내년 방영하는 MBC '가우스전자'는 바람 잘 날 없는 가우스전자 직원들의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린다. 곽복수 작가가 2011년 6월부터 8년간 4편의 시즌을 선보인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곽동연이 가우스전자 마케팅본부의 '트러블 메이커' 사원 이상식 역을 연기한다.

특히 드라마는 KBS 2TV '개그콘서트' 등을 이끈 서수민 PD가 총괄 크리에이티브, 넷브 '음악의 신2' 등을 만든 박준수 PD가 연출을 맡는다. 예능프로그



최근 막을 내린 SBS '원더우먼'과 현재 선보이고 있는 티빙 '술꾼도시여자들' 등이 이끈 안방극장의 코믹 드라마 열기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MBC '가우스전자'의 곽동연을 비롯해 '구필수는 없다'의 곽도원, '지금부터 쇼타임'의 박해진이 그 주역이다. (왼쪽사진부터)

램 연출 경험이 다채로운 제작진이 웹툰 속 개그 코드를 잘 살려낼 것이라 기대감을 받고 있다. 최근 촬영에 돌입한 MBC '지금부터 쇼타임'도 코믹 장르다. 귀신을 부릴 수 있는 마술사 박해진과 순경 진기주가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정석용·고규필 등 베테랑 연기자들이 귀신 역으로 등장해 웃음을 더한다. 스크린에서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곽

도원과 박해준은 각각 주연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와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으로 코믹 장르에 도전한다. 나란히 '인생 2막'을 앞둔 중년 가정의 새로운 도전을 유쾌하게 그린다. 곽도원은 취업과 창업에 도전하는 왕년의 복싱 스타로, 박해준은 늦깎이 작가 지망생으로 등장해 한껏 망가진다.

●"통쾌함 찾는 시청자 늘어"

최근 밝고 가벼운 분위기의 드라마들이 인기를 모으면서 방송사와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코미디 장르를 적극 선보이고 있다. 6일 종영한 SBS '원더우먼'은 검사 이하늬가 재벌가의 비리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밝혀내며 17.8%(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현재 공개 중인 티빙 '술꾼도시여자들'도 정은지, 한선화 등이 술에 취해 빛아내는 해프닝으로 화제몰이에 성공했다. 통쾌한 매력의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덕분이다.

15일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주제가 가볍고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에 시청자가 눈길을 보내는 추세"라면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김흥국·임창정 '백신 미접종 논란'

김흥국 논란 일자 "안센 맞았다" 백신 맞지 않았다 감염된 임창정 취재진엔 접종 확인서 요구 눈살



김흥국

가수 김흥국과 임창정이 '백신 미접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국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한다'는 말에 "그 날 잘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답해 논란을 모았다. 이에 그는 "10월20일 안센 백신을 맞았다"며 "나는 절대 백신 접종 반대자가 아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백신 종류 선택의 자유를 나타낸 것인데 마치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표한 것처럼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임창정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그 이전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새 앨범을 내고 다양한 활동에 나선 그는 8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이지훈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부른 뒤 감염 사실이 알려졌다. 더욱이 새 앨범 쇼케이스에서 취재진에게 백신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다.

13일에는 tvN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해 시청자의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당일 제작진은 녹화일이 '10월 22일'이었고, '전 출연자와 스태프 코로나19 검사 후 촬영했다'는 자막을 이례적으로 방송했다. 임창정의 확진 판정을 의식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연예계 안팎에서는 연예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돼 대규모 오프라인 콘서트가 가능해진 가수들의 경우 많은 관객과 대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흥국은 "백신은 남을 위해서 맞는다"면서 "접종 강제성이 공감하지 않지만, 연예인으로서는 코로나 증식을 위해 방역 시책에 따르는 것은 대중을 만나야 하는 연예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10억 번 로지...가상 연예인이 뜬다

금융·자동차·패션 플랫폼 총망라 로지, 올 광고모델 수입만 10억 드라마 등 연예계 진출도 모색

15일 패션브랜드 질바이질 스튜디오가 전속모델인 로지의 두 번째 화보를 공개했다. 그는 블랙 원피스 차림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토트백과 쇼퍼백을 선보였다. 앞서 9월 레니백을 질바이질 스튜디오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에 등극시키며 패션 영향력을 과시했다.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금융·자동차·온라인 패션 플랫폼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모델이다. 올해에만 1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자 프로배구팀인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는 그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로지는 실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내 최초의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이른바 가상인간이다. SNS까지 개설해 1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로도 불리며 젊은 세대의

환영 속에 스타로 떠올랐다. 실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올해 22살인 로지와 동갑내기인 루이, 롯데홈쇼핑의 루시(29) 등도 활약 중이다.

싸이더스 스튜디오엑스 백승엽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화장으로 결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동양적이고 자연스러운 얼굴"이며,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성격에 에코 프렌들리(친환경)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관'을 지녔다. 백 대표는 최근 영 화진흥위원회의 '월간 한국영화' 인터뷰에서 "MZ세대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셀럽(셀러브리티)의 외모를 분석, 조각 같은 얼굴보다 자연스러운 얼굴을 좋아한다"는 결론에 따라 지난해 8월 국내 첫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를 탄생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로지는 실제 사람으로 통했다.

20·30대가 주류로, 이미 소비의 강력한 주제로 떠오른 MZ세대의 취향에 호응하기 위한 마케팅인 셈이다. 백 대표는 MZ세대가 "가상세계에 개방적"이라면서 "로지는 시대를 흡수하며 다양한 소통을 시도할



'가상 연예인'으로도 불리는 '버추얼 휴먼'의 대표주자들. 왼쪽 사진부터 로지·루이·루시.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모델을 거쳐 본격적인 연예활동까지 내다보고 있다. 뉴스시·사진제공 | CJ·스타일·롯데홈쇼핑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연예계 진출'도 꾀한다. 백 대표는 "넷플릭스와 이야기 나는 것도 있고, 드라마 단역으로 출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이를 조연으로 확장하고, 노래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형적 이미지로만 상품적 가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이

라거나 '궁극적으로 연기 등 배우의 고유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백 대표는 "배우나 브랜드 모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색다른 콘텐츠의 일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케이팝 가수들, 월드투어 '스타트'

2년 만에 팬들과 오프라인 만남 BTS·NCT127·트와이스 등 줄줄이 10여개 팀 100회 넘는 공연 준비

"나가자! 해외로!"

케이(K)팝 스타들이 일제히 대규모 월드투어에 나선다. 최근 국내외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가 시행되면서 공연의 규모를 본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오프라인 공연이 중단된 지 약 2년 만이다. 방탄소년단을 시작으로 NCT 127, 트와이스, 에이티즈 등 내년 상반기까지 10여 팀의 케이팝 그룹이 100회가 넘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피아 스타디움에서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LA'를 열고 모두 네 차례 30만 팬과 만난다. 이후 대규모 투어도 열 계획이다.

'대세'로 떠오른 NCT 127도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두 번째 월드투어를 펼친다. 12월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고척 스타디움에서 '네오 시티:서울 - 더 링크'를 연 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트와이스도 서울 공연으로 네 번째 월드투어의 막을 올린다. 12월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D 돔)에서 '쓰리'를 열고 국내외 팬들을 만난다. 2019년 '트와이스라이프' 이후 약 1년



12월 서울을 출발, 해외로 공연 무대를 넓히는 NCT 127(왼쪽 사진)과 트와이스. 사진제공 | SM·JYP엔터테인먼트

10개월 만에 재개하는 대면 공연이다. 내년 2월16일 LA를 비롯해 오슬랜드, 델라스, 애틀랜타, 뉴욕 등 미국 5개 도시에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에이티즈는 내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12개 도시에서 팬들과 직접 만난다. '더 펠로십:

비기닝 오브 디 엔드' 무대로, 1월 서울을 비롯해 미국 시카고, 애틀랜타, 뉴욕, 달라스, LA 등 5곳, 2월에는 런던과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 폴란드 바르샤바, 스페인 마드리드 등 유럽 7곳의 무대에 오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BTS, MTV 유럽 뮤직 어워즈 4개 부문 석권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MTV 유럽 뮤직 어워즈(MTV EMA)에서 4관왕에 올랐다. 15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최우수 팝 아티스트, 베스트 팝, 베스트 케이(K)팝, 베스트 그룹, 최다 팬 등 4개 부문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어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아메리칸뮤직어워드(AMA)에도 최고상인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 등 후보에 올랐다.

"작가님과 화해" 이지훈 갑질 논란 일단락

배우 이지훈의 '갑질 논란'이 일단락됐다. 15일 IHQ 드라마 '스폰서'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에 따르면 이지훈은 최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스태프 A씨와 직접 만나 오해를 풀었다. A씨는 최근 현장을 찾은 이지훈의 지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지훈은 이날 SNS를 통해 '박계형 작가와도 오해를 풀고 응원과 화해의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앞서 이지훈이 분량 문제로 불만을 제기한 자신이 하차했다 주장했다. 이지훈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워너원, MAMA무대에서 3년 만에 뭉친다

11인조 그룹 워너원이 3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15일 엠넷은 "워너원이 12월11일 열리는 2021 엠넷아시아뮤직 어워즈에서 특별 무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라이관린을 제외한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등 10명이 무대에 오른다. 2017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워너원은 이후 1년6개월 만인 2018년 12월31일 공식 해체했다.